

답 없는 선거제 개혁 소소위 꾸려 논의

정개특위 전체회의, 의원정수 확대 놓고 2시간 내내 평행선 한국당, 300명 동결·도농복합선거제 제안 당내에서도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소(小)소위원회를 꾸려 선거제도 개혁안 도출에 나서는 한편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정치 협상을 병행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나 각 당이 견해를 좁히지 못해 2시간 평행선 논의만 이어간 끝에 이같이 뜻을 모았다.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전체회의와 1소위·2소위를 계속 운영되도록, 각 당 간사와 제가 소소위를 구성해 당분간 집중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체회의에선 자유한국당이 ‘협상

안 가안’을 제시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제 책임하에 사실상 (한국당)협상안이라 봐도 좋다”며 ▲의원정수 300명 동결 ▲200석으로의 지역구 의석 축소 반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도농복합선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방식은 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중에서 접점을 찾자”고도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제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는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등 야 3당에 앞서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먼저 이 가안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우리 당이 도농복합선거제 의견을 모아 확정한 바 없다”고 했고, 최교일 의원은 “도농복합선거제는 한국당 당론이 아니다. 현재 한국당 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은 의원정수 300인 조정, 지역구 의석 축소,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등 쟁점을 두고 내내 대립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야 3당은 어제 의원정수 330석 증원 안을 내놓으면서 지역구 220석을 제안했다”면서 “지역구를 33석 줄이는 건 가능하고 (민주당 안대로) 53석 줄이는 건 불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정당득표율에 의해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비례성 강화인가”라며 야 3당이 제시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이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각 당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한국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은 실현 불가능한 안을, 야 3당은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안은 여야 5당 합의 정신에 어긋나며, 한국당의 태도는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처럼 좁혀질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개특위 내부에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제도를 적용하거나, 과반이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 다수결로 처리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보폭 넓히는 황... 견제 나선 비박

‘불출마’ 김병준 “황교안 친박·탄핵 프레임 통합 걸림돌” 홍준표·김무성 입장 바뀌 출마 고심...정우택 “이미 탄핵”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자 이를 경계하는 당내 목소리가 확산하는 등 당권 경쟁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전·타전 당권 주자만 원내외 1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김무성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등 대권 잠룡들까지 꿈틀거리는 분위기다.

김 의원과 홍 전 대표 등은 당초 이번 전대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황 전 총리가 입당 후 전국을 순회하며 사실상 당권 행보에 들어가자 전대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황 전 총리를 지목해 전대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황 전 총리를 향해 “친박(친박근혜)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당내 통합에 방해되는 건 물론이고 보수정치 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들 프레임에 경계한 뒤 “그나마 약해진 계파논쟁이 살아남 가능성이 크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의 관리를 잘 못한 분도 있고, 당의 어려움을 방관하면서 기여하지 않은 분도 있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 전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대 불출마를 요구했다.

홍 전 대표도 “황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도로친박당’, ‘도로탄핵당’, ‘도로국정농단당’, ‘병역비리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여기에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 전 총리가 이를 피해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당권 주자인 정우택 의원 역시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면 총리도 당연히 탄핵당한 것으로 본다”며 “이런 탄핵 프레임에 걸린 당대표 후보로는 내년 총선 승리 가능성이 없다”고 공격했다.

그럼에도 황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상황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뒤로 미루고 할 상황이 아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다”며 출마 강행 의지를 보였다.

당권주자들 사이 한목소리로 ‘황교안 대세론’을 경계하는 데는 표면적으로 친박·탄핵 프레임에 당이 또다시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차기 당권과 2020년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것 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경제 꽃피워 내년 총선 압승”

민주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내부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문재인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 과제-운영 상황을 공유했다. 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도 다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230여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평화와 경제가 함께 꽃피는 올해를 잘 준비해야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얘기를 들어보니 북미정상회담이 상당히 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2월 말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도 올해는 정부와 당이 전념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국민에게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인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한해가 되기 위해 지역위원장 등지 여러분의 혼연일체 된 단일대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말에 이어 이 대표가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전략기획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이 올해 당 전략기조를, 당 현대화추진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당의 현대화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이해찬 당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조해주 중앙선관위 임명

靑 “인사청문회 법정시한 지나”...야 “2월 국회 보이콧”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기로 하는 등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는 자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려는 것은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 “국회에서는 같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으로 보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2월 국회뿐 아니라 지금부터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나하산 인사의 끝판왕이다. 헌법 파괴 행위를 일삼는 폭주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없이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 벌써 여덟 번째”라며 “특히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

명을 강행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또 대통령이 최종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제출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이날 임명되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된다. 또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재판 청탁·사법농단 전체 문건 공개를”

바른미래 의원 재판 청탁 진상규명위 촉구 회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24일 법원과 검찰을 향해 국회의원 재판 청탁, 사법농단 관련 문건과 보고서 등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채이배 의원과 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은 관행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적폐”라며 이같이 밝혔다.

채 위원장은 “검찰 공소장에서 밝혀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과 한국당) 다수 의원의 재판 청탁 사실만으로도 법원과 국회의 검은 유착이 입증됐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바탕 탄 것과 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법원에 ▲박근혜정부 당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들의 상황을 분석한

‘20대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의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재판청탁에 연루된 정당들은 연루자들 전원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개혁을 위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서 확인됐듯 정의실현에 있어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사법농단 와중에 벌어진 국회 일부의 재판 청탁도 마찬가지로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재판을 거래한 대법원장도 처벌받는데, 재판을 청탁한 국회의원이 무사하다면 국회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본 투시는 고역역 이목을 끌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전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전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분양 임대 1899-8947

시흥 I (주)SB빌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흥 I 기본종합건설

임야 단독섬

- 바로 삽니다!
- 전남/북지역/지분 환영
- 1억원 이하
- 당일 매입 가능

문의. 010-6834-7400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하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분
 - 태양광발전소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업체
-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사업주에게 유망하다
 - 태양광 사업주에게 유망하다
 - 태양광 개발사업 운영한다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 010-6834-7400, 02-8388-8888, 02-8388-8888
태양광사업: 010-6834-7400, 02-8388-8888, 02-8388-8888
태양광사업: 010-6834-7400, 02-8388-8888, 02-8388-8888

부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전략기획	전략기획	· 태양광사업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 회	순	
		영업	영업	· 태양광사업 경력자			
세	라	수업관리	설계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 나	주	
		영업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영업	영업	· 영업 관리와 전문지식 보유			

* 업무분야: 태양광 사업, 태양광 사업, 태양광 사업, 태양광 사업, 태양광 사업, 태양광 사업, 태양광 사업, 태양광 사업, 태양광 사업, 태양광 사업